

보도일시	2025. 05. 11. (일요일)		
위원회명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위원장
담당자	이우형 / 비서관 / 02-784-6450	E-mail	wishjeju@daum.net

기후위기대응위원회 호남권 태양광사업자 현안 간담회 찾아

- 재생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적 공감 확인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 이하 기후위)는 10일(토) 오후 2시, 광주광역시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호남권 태양광발전사업자 현안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의원 박균택(광주 광산갑), 양부남(광주 서구을), 기후위 공동위원장인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양이원영 전 의원,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지난 3년간 태양광 산업이 부당하게 카르텔로 낙인찍히며 탄압을 받아왔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하고, 재생에너지 우선 구매 및 우선 접속,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송배전망 확충 등 무너진 재생에너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전진숙 공동위원장은 “에너지 안보와 전환을 위해 태양광 산업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광주, 전남, 전북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햇빛과 바람이라는 자연의 선물을 활용해 산업의 쌀인 전기를 생산하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후보”라며, “호남권 15,000여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가족의 지지를 모아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자” 고 밝혔다. /끝

※ 붙임. 지지 선언 현장 사진

